

# NEWSLETTER

November 2023 / with BIBLE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사 1:18

얼마 전 첫눈이 내렸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눈이 오면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렙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여기서 **변론**은 재판이 아니라 서약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검붉은 죄로 뒤덮인 우리 영혼을 반드시 눈과 같이 희게 씻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산물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 51:7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어진 영혼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눈보다 희게 만드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주홍 같은 우리 영혼을 눈과 같은 주님 은혜가 날마다 덮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백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맛봅니다.

# 죄 많은 우리를 복음이 살게 했고, 죄로 넘어지는 우리를 복음이 살게 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려 하지만,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의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당신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건 별일 아니야. 모두가 이 정도는 하잖아’라고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죄니까 괜찮아’라고 속히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롬 8:13).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입니다(롬 8:14).

나미성(나태하고 미지근한 성도)의 특징은 죄에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에 얽매어 있거나, 심지어 죄를 즐깁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 복음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점점 딱딱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마음으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런 삶의 끝에는 거룩하

“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에는 은혜가 담겨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책망하신다 - R. C. 스프로울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이 거할 영원한 심판의 처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은 삶의 방식을 억지로 짊어지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눈처럼 희게 씻으신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벧전 1:8). 복음이 약속한 영혼 구원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